

연구논문

낙태에 대한 태도와 종교:
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 국제비교분석*

Religion and Attitudes towards Abortion:
A Cross-National Comparison among Korea,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Philippines

김상욱^{a)} · 김성건^{b)} · 김병수^{c)}
Sang-Wook Kim · Sunggun Kim · Byung-Soo Kim

이 연구는 낙태에 대한 태도가 종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러한 차이는 또한 사회에 따라 어떠한 변이를 나타내는가 하는 문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종교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에서 대단위 국제비교분석 자료를 활용한 계량분석의 토대가 비교적 척박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낙태와 종교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을 탐구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기존연구들을 통해 이론적·경험적 정합성이 확보된 6가지 연구가설들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검증을 ISSP의 <종교> 모듈조사 자료에 포함된 4개국(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시도하였다. 검증 결과 3가지 가설은 지지되었고 3가지는 기각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해, 모든 비교대상 국가들에서 종교인들보다는 비종교인들이 낙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H1]), 그와 같은 개방성은 한국의

* 이 논문의 초고는 2014년도 미국사회학회(ASA: San Francisco, 8월 14일)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논평자들 그리고 <조사연구>의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 a)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김상욱.
E-mail: swkim@skku.edu
- b)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c)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경우 복음주의 개신교도보다는 불교도에게서([H2])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개신교도보다는 가톨릭교도에게서 확연히 보편적인([H3])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리핀의 경우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의 순으로 개방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H4])은 지지를 받지 못 하였으며, 아울러 비교대상 국가들을 통틀어서 사회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일수록([H5]) 그리고 사회인구학적으로 활동적인 인구집단일수록([H6]) 개방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 또한 지지되지 않았다. 비단 긍정 혹은 부정의 비율을 넘어 이와 같은 결과는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경험적 함의 및 시사점을 보유하는 것으로서 이들과 관련한 집중적인 논의가 말미에 제시되었다.

주제어 : 낙태에 대한 태도, 종교, 종교집단, 국제비교분석, ISSP, 사회경제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This study tries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 of how different people's attitudes towards abortion are depending on religion and religious groups, one the one hand, and how the difference further varies by different societies, on the other hand. As such, this study was initially triggered by a critical diagnosis of the research trend in Korea that religion studies for the last few decades tend to be pretty much deprived of rigorous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large-scale cross-national survey data. In an effort to mitigate this problem, the ISSP <Religion>(2008) module survey data for 4 countries (Korea, Japan, the U.S., and the Philippines) was analyzed to test for a set of hypotheses that were derived from the theories and finding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n and abortion attitudes. Results of data analysis turned out to be mixed together, with half and half hypotheses having confirming and disconfirming evidence, respectively. To reiterate: as compared to those who follow a religion, those who don't follow a religion were indeed more liberal to abortion in all across the countries; liberal attitudes to abortion in Korea were more prominent among the Buddhists than the Evangelical Protestants; liberal attitudes in Korea and the U.S. were

more prominent among the Roman Catholics than the Protestants. Unlike the expectation, however, the hypothesis predicting that liberal attitudes in the Philippines would be most prevalent among the Catholics, followed by Protestants and Muslims, failed to be supported. Furthermore, the other two hypotheses predicting that liberal attitudes would be salient particularly in the socio-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for one thing, and among the socio-economically active populace all over the countries, for another, were not supported, either. Regardless of the status of empirical support, however, findings in this study possess a lot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for studies of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abortion attitudes worldwide, and these were discussed in details in the context of each society.

Key words : attitudes towards abortion, religion, religious groups, cross-national comparison, ISSP,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연구경향은 선진 서구사회와 상이한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이론 및 담론 위주의 논의가 활발한 것에 비해서는 실증분석 연구가 대체로 결여된 경향이 있다. 둘째, 실증분석 중에서도 질적·역사적 분석이 지배적일 뿐 엄정한 양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셋째, 그나마 원숙한 양적 분석 중에서도 연구대상이 국내에 한정된 것이 대부분(예, 한내창 2010, 2012; Jung & Olson 2014)일 뿐 대단위 국제비교분석 자료를 활용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는 극히 일부(예, 은기수 2002)를 제외하곤 그다지 흔치 않다.

국내 종교연구에 대한 이러한 간략한 진단은 양질의 국제비교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 세부 연구문제들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들이 풍성히 시도되어 질 필요성을 시사하며, 이 연구의 단초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규명하려 하는 연구문제는 낙태와 종교 사이의 관계로서, 낙태에 대한 태도가 종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러한 차이는 또한 사회에 따라 어떠한 변이를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경험적 정합성에 기반한 일련의 연구가설들을 도출해 내고 이들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ISSP¹⁾의 주관 아래 지난 2008년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된 <종교>(Religion III) 모듈조사 자료에 포함된 4개국(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국내에서와는 달리 이미 서구사회에서는 지난 수십 여년에 걸쳐서 종교와 성(sexuality)²⁾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수많은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산출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결과 몇 가지만 간략히 예시하자면, 낙태 및 비전통적 성행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비종교인보다는 종교인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며(Beckwith & Morrow 2005; Evans & Hudson 2007), 복음주의 개신교도가 구교도(가톨릭교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Pew Research 2013), 이슬람교도가 개신교도에 비해 보수적이라는 사실(Adamczyk & Hayes 2012) 등이 밝혀져 있다. 이는 결국 낙태나 비전통적 성행위 등과 같은 성과 관련한 사람들의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하나가 다름 아닌 종교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의 연구들조차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었으니, 대다수 연구들이 특정한 종교가 지배적인 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수행됨으로 인해서 이른바 ‘세

-
- 1)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http://www.issp.org>)는 GSS 형태의 학술사회조사를 수행하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국제연계네트워크로서, 한국의 ISSP 참여는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의해 2003년 이래 계속되어 오고 있다.
 - 2) 종교연구에서 성(性)은 인간의 성적 욕망과 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제도 및 규범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낙태 이외에도 이른바 ‘비전통적’(non-traditional) 성행위(예, 동성애, 혼외정사, 혼전성교 등) 및 그에 대한 태도 등을 두루 포함한다.

계종교'(world religion)라 불리는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간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까지에는 좀처럼 다다르지 못한다(Adamczyk & Hayes 2012)는 지적이 종종 제기되곤 하였다. 강조하건대,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차이, 서로 다른 종교인들 상호간의 차이 등을 비롯해서 특정한 연구문제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연구결과가 복수의 사회에서 설사 이미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엄정한 비교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상쇄한다든지 부인하게 하는 근거일 수는 결코 없다. 그 이유는 그러한 연구들은 다만 동일한 문제를 다루었을 뿐 엄연히 각국에서 이루어진 별개의 연구들로서 변수측정을 위시한 연구설계의 핵심적 국면에서까지도 동질적일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³⁾ 결국 이와 같은 지적 및 필요성은 국제비교분석용 대단위 사회조사 자료에의 접근 및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재차 웅변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종교와 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함에 있어서 국가의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는 비교사회학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의 또 하나의 중요한 논거는 서로 다른 사회의 사회경제학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종교 이외의 독립변인 혹은 사회적 맥락으로 작동해서 성 관련 인식으로 발현된다는 데에 있다. 이를테면,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낮은 사회에 비해 그 정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종교의 종류 혹은 종교성(religiosity)과 별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개방적 혹은 진보적인 성 관련 인식이 나타난다거나(Inglehart 2006), 어느 국가에서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월한 인구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서 종교 혹은 종교성과

3) 이 연구의 경우 기존연구들과 달리 엄정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설의 검증이나 결과의 해석 등에 있어서 국가 간 비교를 적극 시도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가 실제 계량분석 단계에 있어서까지도 여러 나라들의 자료를 한꺼번에 혼합한 상태에서 통계적 추정이나 검증을 시도한다는 식으로 오해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이유는 자명하여서, 아무리 국제비교분석용 자료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구도의 동일한 측정방식을 사용하였을 뿐 각국의 표집이나 실사 방식까지도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추정 및 검증 자체는 개별 국가별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비교는 의당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얻어진 계수들의 상호 비교 혹은 평균차이 비교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개방적·진보적 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Adamczyk & Pitt 2009)고 하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는 결국 종교가 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사회경제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지니는 여러 국가들을 동시에 포함시켜 비교분석하는 방식의 연구설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환기시키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 및 주장에 적극 부합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ISSP 자료에 포함된 4개국(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종교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이들 4개국을 선별한 것은 사실상 주도면밀한 정량적·정성적 선택의 결과로서, 우선 양적으로 볼 때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효의 국가들이 선별될 경우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은 일정 부분 고양될 수 있겠지만 연구의 치밀성 및 완결성은 부득이 상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심분 고려한 것이다. 정성적으로 보더라도 해당 국가들이 선별된 데에는 의외로 중요한 이론적·경험적 함의가 존재하여서, 이 연구의 여러 연구가설들은 그러한 함의를 밑바탕으로 해서 국가 내(intra-social) 혹은 국가 간(inter-social) 차이를 예측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 국가별 선택 논거를 상세히 부연하여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은 이 연구가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발표된다는 엄연한 현실 이외에도 한국사회는 이른바 ‘세속사회’(secular society)임과 동시에 ‘다종교사회’(multi-religious society)의 특성까지도 동시에 지님으로 인해서 낙태와 같은 성적 행동에 대한 여러 종교집단 간의 차이를 밝혀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다음으로 가장 ‘기독교화된’(Christianized) 나라로서 보수적인 복음주의 개신교의 상대적 비중과 절대적 영향력이 상당할뿐더러 개신교도와 불교도 사이의 대립과 반목이 현저하기 때문에 제반 종교집단들을 둘러싼 국내적·국제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과 더불어서 서구사회와의 비교를 도모한다는 준거의 의미 이외에도 일본사회의 종교적 편향성(즉, 불교만이 거의 유일무이한 세계종교), 세속성(즉, 상당수 국민들이 무신론자이거나 무종교인), 사회경제적 수준(즉, 미국에 필적하는 발전 수준), 사회문화적 특이성(즉, 신도(神道)와 결부된

토속적 환경) 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함이다. 일본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낙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불교와 여타 세계종교와의 차이, 무신론자·무종교인과 종교인과의 차이, 발전국가와 저발전국가와의 차이, 토속적 풍토와 종교적 풍토 사이의 차이 등을 다각도에서 조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종교와 성 사이의 연구결과가 이제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축적된 나라일뿐더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가장 앞선 대표적인 서구 사회이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비교사회학적 준거가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된 선택이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이른바 ‘성서적 문자주의’(Biblical literalism) 및 ‘도덕적 공동체’(moral community)⁴⁾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더없이 좋은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비록 동양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한, 일, 미 등의 세속 사회가 아닌 가장 대표적인 종교사회(religious society) 가운데 하나로서, 일부 이슬람교도나 개신교도를 제외하고는 가톨릭이 거의 지배적인 종교분포를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있어서도 대상 국가들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상태에 있다. 필리핀의 이러한 종교적·사회경제적 특성은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세속사회와의 비교, 동서양의 비교, 제반 종교집단 사이의 비교,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의 비교 등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정합성을 보유한다.

이상에서 상술한 이들 4개국의 종교적, 사회경제적,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국가내 혹은 국가간 차이를 예측해 내기 위한 핵심적 저변 혹은 사회적 맥락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예측에 이론적·경험적 정합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따라서 아래 이론 및 가설 부분에서 제시될 상세한 이론적·경험적 논의는 낙태에 대한 태도가 종교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그러한 차이는 또한 서로 다른 사회에서 어떠한 변이를 나타내는가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일련의 정치된 연구가설들을 도출해내기 위한 디딤돌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제시된 가설들에 대한 정

4) 성서적 문자주의 및 도덕적 공동체와 관련된 이론적 주장 및 경험적 발견은 이 연구의 핵심적 내용 가운데 하나로서 연이어서 제시될 연구가설을 설명할 때 상술될 것이다.

교한 검증의 결과는 낙태와 종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수행된 수많은 기존연구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보유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 및 가설

이 연구에서는 모두 6가지 연구가설이 제시되고 검증되는데, 각 가설마다 그 내용 및 근거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주로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종교와 낙태 간의 실증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집중적인 연구관심이 조명되어온 연구문제는 종교집단과 비종교집단 사이의 낙태에 대한 태도 차이로서, 종교집단(그중에서도 종교적으로 신실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vans & Hudson 2007; Ogland & Verona 2011). 한편 이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국내연구 또한 적지는 않은데, 이를테면 종교와 여성의 사회참여 및 남아선호사상과 낙태의 관련을 분석한 연구(오선주 1993), 증산도의 ‘뱃속살인’ 개념을 중심으로 낙태에 대한 한국인의 종교 의식을 논한 연구(사라타니 유미 2004), 한국교회가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살펴본 연구(이경직 2007), 그리고 한국에서 낙태와 관련한 가톨릭 신자들과 비종교인들의 입장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원인으로 가족주의 및 남아선호 사상이 젊은 부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목한 연구(Chung 2007) 등이 그것이다.

서로 다른 종교집단마다 낙태를 보는 시각 및 견해의 정도 차이가 존재함은 물론이겠으나, 본질적으로 종교생활 자체는 생명존중 사상을 일정 부분 내포하는 보편적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미생의 인간존재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으로 표현된다고 보는 것이 하나의 정설이다. ‘종교 vs. 비종교’를 둘러싼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이와 관련한 서구의 경험적 연구결과는 상당히 일관적인 경향이 있어서, 비단 시간적(조사의 시기)으로뿐 아니라 공간적(조사의 대상 혹은 국가)으로 보더라도 대

동소이한 결과가 통상적으로 보고되곤 한다. [H1](연구가설 1)은 이와 같은 국내·외적 연구결과 및 논거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이미 강조되었다시피 이 연구는 종교적, 사회경제적,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질성을 지니는 복수의 나라들 모두를 일시에 비교사회학적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다.

[H1] 비교대상 국가 모두에서 종교인들에 비해 비종교인들이 낙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낙태와 관련하여 종교집단과 비종교집단 사이의 비교 못지않게 집중적인 연구관심이 조명되어 온 문제는 다름 아닌 종교집단 내 비교 혹은 변이로서, 이를테면 개신교와 가톨릭의 차이, 개신교와 이슬람교의 차이, 가톨릭과 이슬람교의 차이 등은 그 자체로서 초미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 왔다. 한편 그러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은 거의 대부분 국가 간 비교이기보다는 국가 내 비교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비단 분석자료의 접근 및 이용 가능성 문제 이외에도 복수의 세계종교들이 비교적 균등한 세력을 형성하여 유기적으로 경합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종교사회는 의외로 흔치 않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의 서로 다른 종교를 등가적으로 비교하려 시도할 경우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관련된 맥락적(contextual) 설명 및 해석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 등과 무관치 않다고 여겨진다. 여하튼 이로 인해 기존연구들은 분석의 초점을 특정한 국가로 한정시킨 상태에서 둘 또는 세 가지 종교집단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가장 우선적인 종교집단 간 비교는 한국의 불교와 개신교의 차이와 관련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해 한국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보수적인 복음주의 개신교도보다는 불교도에서 현저할 것이라는 예측([H2])이 그것이다.⁵⁾

5) 주지하다시피, 불교와 개신교의 차이 비교는 일본의 경우에는 개신교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엔 불교의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 두 종교의 비율 공히 현저히 낮기 때문에 결코 여의치가 못하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도 불교와 복음주의 개신교만을 비교할 뿐 가톨릭을 [H2]에

[H2] 한국사회에서 불교도들이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에 비해 낙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낙태에 대한 종교집단 간 차이에 대한 여러 기존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기실 불교와 여타 종교와의 비교를 직접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흔치 않다(Adamczyk & Hayes 2012). 이는 무엇보다도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 등의 여러 세계종교들이 비교적 균등한 세력을 형성한 상태에서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다종교사회적 특성을 보유한 나라가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이며, 이 점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불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집단 간 변이를 규명하기 위한 상당한 적합성을 지닌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성 관련 인식에 있어서 불교와 여타 종교를 비교한 일부 연구(Adamczyk & Pitt 2009)에 따르면 불교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의 이른바 유일신앙과 상이하게 혼외 성관계나 낙태 등과 같은 성 행위에 대한 엄격한 종교적 규칙이나 교리를 별도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개신교도 대비 불교도의 개방적·수용적 태도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⁶⁾

한국의 ‘불교 vs. 복음주의 개신교’([H2])에 이은 두 번째 종교집단 간 비교는 한국과 미국의 ‘가톨릭 vs. 복음주의 개신교’([H3]) 비교이다. 기독교의 양대 산맥인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비교에 있어 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일본이나 필리핀과 상이하게 비교적 등가적인 비교를 도모하기에 별다른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양국 공히 두 종교의 세력이 비교적 비등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함께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연이어 제시될 [H3]에서 (미국과 더불어) 한국 내 ‘보수적 개신교 vs. 가톨릭’ 간 직접적 비교가 별도로 시도되기 때문이다.

6) 불교가 개신교에 비해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나 교리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해서 불교가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사실 불교의 전통적 교리에 따르면 생명은 태아의 수정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보며 따라서 낙태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Harvey 2000). 한편 낙태에 대한 불교의 교리는 지역적 편차가 커서 한국이나 일본 등지의 동아시아에서는 티벳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Harvey 2000).

[H3] 한국과 미국에서 가톨릭교도들은 복음주의 개신교도들에 비해 낙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낙태를 포함한 성 관련 인식에 있어서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교리는 ‘성서적 문자주의’(Biblical literalism) 및 ‘도덕적 공동체’(moral community) 관련 주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언컨대, 성서의 교리를 따르고 실천함에 있어서 개신교도들은 ‘문자 그대로’ 따르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성서적 문자주의자들임에 비해서 가톨릭교도들은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소위 ‘명목적 신자들’(nominal believers)의 특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Hoffman & Bartkowski 2008). 또한 이른바 ‘도덕적 공동체 가설’(moral community hypothesis)에 따르면 종교적 상황 혹은 맥락이 도덕적 기준을 개인의 종교성보다 우위가 되는 방식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행사한다(Bartkowski et al. 2012)고 한다. 이로 인해, 종교집회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유난히 강조되는 개신교의 경우 E. Durkheim(1995)이 말하는 이른바 ‘집합적 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이 강화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도덕공동체로서 개인의 의식과 행동에 상황적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

그에 비해 가톨릭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비록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어 있는 공동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선 다양한 하위집단들(전통주의자, 온건주의자, 자유주의자 등)의 느슨한 연합(loose coupling)의 성격이 짙으며(Evans & Hudson 2007), 이처럼 순화된 도덕공동체에서 신자들은 교구의 메시지(예, 낙태금지)를 개인적 가치와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종교적 냉담자 혹은 명목신자의 성향을 나타내곤 한다. 그래서 바티칸에서는 낙태 반대의 메시지를 보편적 교회에 수시로 내려 보내지만 정작 각 교구에서는 자신들의 성향에 따라 이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교 vs. 복음주의 개신교’([H2]) 및 ‘가톨릭 vs. 복음주의 개신교’([H3])에 연이은 세 번째 종교집단 간 비교는 필리핀에서 ‘이슬람교 vs. 복음주의 개신교 vs. 가톨릭’([H4]) 간의 비교에 관한 것이다. 이 비교가 필리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슬람교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서 비교가 거의 여의치 못한 한국, 일본, 미국과 달리 필리핀의 경우 비록 높지는 않지만 일정한 비율의 이

슬람교 및 개신교가 존재한다는 점 이외에도 해당 3대 세계종교 모두에 대한 일괄적 비교를 가능케 하는 경우는 그나마 필리핀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H4] 필리핀에서 낙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는 가톨릭교도 > 복음주의 개신교도 > 이슬람교도의 순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비교의 주된 초점은 기독교 내부의 비교([H3])이기보다는 ‘이슬람 vs. 기독교’ 비교([H4])에 있는데, 최근의 한 연구(Adamczyk & Hayes 2012)에 따르면 성 관련 인식 및 행동에 있어서 보수적인 색채가 가장 강한 유일 신앙적 세계종교는 다름 아닌 이슬람교라고 한다.

상기 세 가지 가설([H2], [H3], [H4])은 공히 특정한 국가 내 종교집단 상호간의 비교이었는데, 전술하였다시피 성 관련 인식 및 태도는 다만 종교의 유무([H1]) 및 종교집단([H2]~[H4])에 따라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수준에서 해당 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H5])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H6])에 따라서도 변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 특성들에 대한 명시적 가설화를 시도한 것이 다음의 두 가설([H5], [H6])이다.

먼저 [H5]는 국가 간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한 가설로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한 필리핀이나 한국에 비해서 그 정도가 더한 미국이나 일본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일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는 특정한 종교집단 혹은 종교성(religiosity)과 무관한 국가 수준의 거시적 예측임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종교가 없는 인구집단의 경우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더 확연할 것임까지도 예측하고 있다.

[H5] 낙태에 대한 태도는 한국이나 필리핀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더 개방적이며, 이는 특히 비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현저할 것이다.

지난 수십 여 년 동안의 전 세계적 종교연구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지지를 확보한 주장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생존(survival) vs. 자아표현(self-expression)’ 주장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발전되고 안정된 사회일수록 생존

문제보다는 자아표현이 중요해져서(Inglehart 2006) 종교적으로도 다원주의 및 비전통적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허용적으로 변화한다고 본다(Adamczyk & Pitt 2009). 이에 반해 사회경제적 발전이 아직 미비한 사회의 경우 자아표현보다는 생존 문제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종교적으로도 획일적, 전통적, 보수적 성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한편 낙태를 포함하는 성 관련 인식은 종교집단에 따라 변화한다는 앞서의 예측([H2]~[H4])을 감안할 때, [H5]에서 말하는 국가 수준의 차이는 종교가 없는 인구집단의 경우에 더 뚜렷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H6]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가설로서, 한 사회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제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인구집단(즉,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층, 도시민, 취업자, 고소득자)이 그렇지 못한 집단(즉, 여성, 노년층, 저학력층, 농어촌주민, 미취업자, 저소득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인식을 보유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보다시피, [H5]와 [H6]는 모두 특정 종교집단이나 종교성과 관계없는 국가 수준의 예측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실제 분석단계에 있어서는 [H5]가 국가 간(inter-social) 비교였다면 [H6]는 4개국을 통틀어 이루어지는 국가 내(intra-social) 비교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H6] 4개국 모두에서 이른바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인구집단’(즉, 남성, 청장년층, 고학력층, 도시민, 취업자, 고소득자)이 그렇지 못한 인구집단(즉, 여성, 노년층, 저학력층, 농어촌주민, 미취업자, 저소득자)에 비해 낙태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전술한 ‘생존 vs. 자아표현’ 주장의 논지는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른 국가 간 차이([H5])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물론이요, 국가 내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차이([H6])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종교사회학자 Hunter(1991)가 인식론적 측면에서 진보적 세계관과 보수적 세계관을 구분하여 내놓은 이른바 ‘문화전쟁(culture wars)’ 이

론은 [H6]에 상당한 정합성을 부여한다. Hunter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 주로 많은 고학력 세속주의자들과 남부에 주로 많은 저학력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을 그들이 지니는 세계관의 측면에서 면밀히 비교하였는데, 낙태와 동성애 등과 같은 도덕적 쟁점에 대해서 세속주의자들은 개방적 태도를 보인 반면에 복음주의자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미국사회에서 진보적 세계관과 보수적 세계관이 각축하는 문화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와 같은 태도 차이가 과연 종교 혹은 종교성에 주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와 밀접히 연관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주로 기인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일정 부분 의문으로 남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종교와 결부되어 거시적 세계관 및 미시적 시각(예, 낙태에 대한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한 사회 내의 집단 혹은 계층 간에 확연히 드러나는 세계관의 차이를 일컫는 문화전쟁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 내에서 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유하는 인구집단은 그렇지 못한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성 관련 인식 및 태도를 견지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가설들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ISSP의 2008년 모듈조사 <종교>(Religion III) 자료에 포함된 4개국(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모듈은 1991년 및 1998년에 이어 ISSP에 의해 도합 세 번째로 시행된 <종교> 국제조사로서, 종교성, 종교적 신념, 종교적 태도, 종교 행사 참여, 종교의 영향력, 타종교에 대한 인식, 종교적 극단주의, 종교와 세대, 종교와 정치 등 가히 종교와 관련한 핵심적인 사회과학적 주제들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이 연구의 초점인 낙태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고 있

음은 물론이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생산된 수준 높은 대단위 국제비교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표방하는 엄정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를 도모하기에는 최적의 자료라고 여겨진다.⁷⁾

2. 측정 및 분석

ISSP 조사의 설문항목은 통상 2년여 동안의 집중적인 조율과정(사전조사 및 공동협의 등 포함)을 거친 후 모든 회원국들의 일괄적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 각 회원국에 의해 일시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변수에 대한 측정방식이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가 없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낙태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 항목으로 측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태아에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및 “가구소득이 너무 낮아 더 이상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을 경우” 각각과 관련하여 여성이 인공유산을 하는 것에 대해 옳다고 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응답범주는 “전적으로 옳지 않다”, “대부분 옳지 않다”, “때에 따라 옳지 않다”,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 등 4개가 제시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두 항목에 대한 응답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모형에 동원된 변인들 가운데는 종속변인 이외에도 기준변인(criterion variable)에 해당하는 종교,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수학년수, 거주지역, 취업상태, 가구소득), 주관적 성향(종교적 성향, 이념적 성향) 등이 있는데,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상기 가설에서 예측하는 사회경제적·사회인구학적 변이를 검증할 목적으로, 그리고 주관적 성향은 종속변인에 대한 여러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통제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의 측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7) ISSP 조사의 주요 방법론적 내용들(즉, 설문구성, 표본추출, 실사, 자료처리 등)은 김상욱 외(2008)를 참고하기 바란다.

< 표 1 > 기술통계

변인	유효사례수 ¹⁾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사향도	신뢰도 ²⁾
<u>중속변인</u>						
낙태에 대한 태도						
한국	1,421	2.818	.863	1~4 ³⁾	-.423	.495
일본	769	2.583	.822	1~4 ³⁾	-.229	.660
미국	1,019	2.562	1.143	1~4 ³⁾	-.056	.727
필리핀	1,062	1.362	.668	1~4 ³⁾	1.950	.605
<u>종교</u>						
한국	1,421	-	-	1~4 ⁴⁾	-	_.8)
일본	769	-	-	1~4 ⁵⁾	-	_.8)
미국	1,019	-	-	1~3 ⁶⁾	-	_.8)
필리핀	1,062	-	-	2~5 ⁷⁾	-	_.8)
<u>사회인구학적 변인</u>						
성별						
한국	1,421	.455	.498	0~1 ⁹⁾	.180	_.8)
일본	769	.468	.499	0~1 ⁹⁾	.128	_.8)
미국	1,019	.467	.499	0~1 ⁹⁾	.132	_.8)
필리핀	1,062	.498	.500	0~1 ⁹⁾	.009	_.8)
연령						
한국	1,421	44.390	16.21	18~90	.519	_.8)
일본	769	51.410	17.30	18~94	-.081	_.8)
미국	1,019	47.150	17.40	18~89	.338	_.8)
필리핀	1,062	41.360	15.33	18~88	.519	_.8)
수학년수						
한국	1,421	12.120	4.230	0~22 ¹⁰⁾	.519	_.8)
일본	769	12.580	2.614	6~22 ¹⁰⁾	-.081	_.8)
미국	1,019	13.180	3.016	0~20 ¹⁰⁾	.338	_.8)
필리핀	1,062	9.400	3.758	0~25 ¹⁰⁾	.519	_.8)
거주지역						
한국	1,421	.452	.498	0~1 ¹¹⁾	.194	_.8)
일본	769	.194	.396	0~1 ¹¹⁾	1.553	_.8)
미국	1,019	.067	.250	0~1 ¹¹⁾	3.477	_.8)
필리핀	1,062	.248	.432	0~1 ¹¹⁾	1.171	_.8)
취업상태						
한국	1,421	.605	-.428	0~1 ¹²⁾	-.428	_.8)
일본	769	.577	-.314	0~1 ¹²⁾	-.314	_.8)
미국	1,019	.645	-.606	0~1 ¹²⁾	-.606	_.8)
필리핀	1,062	.592	-.376	0~1 ¹²⁾	-.376	_.8)

(계속)

(계속)

변인	유효사례수 ¹⁾	평균	표준편차	최소~최대	사향도	신뢰도 ²⁾
가구소득						
한국	1,421	3,540	2,403	0~10,149 ¹³⁾	.927	-.8)
일본	769	4,500	3,305	384~15,372 ¹³⁾	1.577	-.8)
미국	1,019	4,090	2,869	167~11,667 ¹³⁾	.777	-.8)
필리핀	1,062	234	250	11~2,700 ¹³⁾	3.540	-.8)
LN_가구소득						
한국	1,421	7.831	1.095	0~9.23	-2.977	-.8)
일본	769	8.143	.780	5.95~9.64	-.490	-.8)
미국	1,019	7.997	.905	5.12~9.36	-.863	-.8)
필리핀	1,062	5.067	.886	2.42~7.90	-.056	-.8)
주관적 성향						
종교적 성향						
한국	1,421	3.925	1.756	1~7 ¹⁴⁾	-.300	-.8)
일본	769	3.430	1.623	1~7 ¹⁴⁾	-.028	-.8)
미국	1,019	4.812	1.397	1~7 ¹⁴⁾	-1.129	-.8)
필리핀	1,062	5.140	.913	1~7 ¹⁴⁾	-.698	-.8)
이념적 성향						
한국	1,421	2.899	.951	1~5 ¹⁵⁾	.080	-.8)
일본	769	2.779	.562	1~5 ¹⁵⁾	.656	-.8)
미국	1,019	3.144	.778	1~5 ¹⁵⁾	-.256	-.8)
필리핀	1,062	2.952	.712	1~5 ¹⁵⁾	-.009	-.8)

주: 1) 유효사례수(N)은 <표 3>의 다원분석(multivariate analysis)에 포함된 모든 사례 수들과 관련된 목록삭제(listwise deletion) 이후의 사례 수를 지칭함.

2) Cronbach's α 계수.

3) 1 = 매우 보수적; 4 = 매우 개방적.

4) 1 = 무종교($n_1=576$, 40.5%); 2 = 가톨릭($n_2=131$, 9.2%); 3 = 개신교($n_3=377$, 26.5%); 4 = 불교($n_4=337$, 23.7%).

5) 1 = 무종교($n_1=499$, 64.9%); 4 = 불교($n_4=270$, 35.1%).

6) 1 = 무종교($n_1=181$, 17.8%); 2 = 가톨릭($n_2=263$, 25.8%); 3 = 개신교($n_3=575$, 56.4%).

7) 2 = 가톨릭($n_2=983$, 92.6%); 3 = 개신교($n_3=16$, 1.5%); 5 = 이슬람교($n_5=63$, 5.9%).

8)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의 경우 Cronbach의 α 계수를 측정할 수 없음(Nunnally 1978).

9) 0=여성; 1=남성.

10) 누적 수학년수(예, 12=고졸; 16=대(4년제)졸).

11) 0=대도시 아님(인구 1백만명 미만); 1=대도시(인구 1백만명 이상).

12) 0=미취업; 1=취업.

13) 월평균 가구 총소득, U.S. dollars.

14) 1 = 전혀 종교적이지 않음; 7 = 매우 종교적임.

15) 1 = 매우 보수적; 5 = 매우 진보적.

이 연구의 여러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기법이 동원되었는데, 먼저 이원분석(bivariate analysis)을 위하여 각 가설에서 예측하는 해당 종교집단들 간 평균차이에 대한 F-검증을 시도하고(<표 2>), 연이어서 다원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위해 분석모형에 포함된 여타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종교집단별 차이를 감별해 내는 OLS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표 3>). 한편 여타 가설들과 달리 [H5]의 경우에는 사회경제적 발달 수준과 관련된 국가 간(inter-societal) 차이만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F-검증만이 시도되었다.

IV. 분석결과

각 가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분석모형에 포함된 여러 변인들 가운데 이 연구의 기준변인인 종교 그리고 종교적 성향에 있어서의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표 1>), 먼저 종교분포에 있어서는 한국은 무종교(40.5%) > 개신교(26.5%) > 불교(23.7%) > 가톨릭(9.2%)의 순으로 나타나 비록 무종교의 비율이 비교적 높기는 하지만 대체로 다종교적인 특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일본의 경우 무종교(64.9%)의 비율이 과반을 훨씬 상회하며 불교(35.1%)만이 나머지를 형성한다. 미국은 개신교(56.4%) > 가톨릭(25.8%) > 무종교(17.8%)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종교인의 비율이 적잖이 높으면서도 전형적인 기독교(특히 개신교) 국가의 특성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의 경우에는 무종교가 전무한 상태에서 가톨릭(92.6%)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약간의 이슬람교(5.9%) 및 개신교(1.5%)가 뒤를 잇고 있다. 이와 같은 종교분포는 앞서 논의된 해당 국가별 종교분포와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각종 통계집계에 제시된 국가별 종교분포와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다음으로, 객관적인 종교분포에 있어서의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각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바의 종교적 성향으로도 그대로 투영되어서($p < .001$), 무종교인이 전무하였던 필리핀의 경우가 종교적 성향이 가장 높으며(5.140), 그 비율이 두 번째로 낮았던 미국의 종교적 성향이 두 번째로 높고(4.812), 세 번째로 낮았던 한국이 세 번째이며(3.925), 해당 비율이 가장 높았던 일본의 종교

적 성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3.340). 객관적 종교분포 및 주관적 종교성향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분포형태는 위에서 이 연구의 연구가설들과 관련하여 국가 내·국가 간 차이를 예측할 때 논의되어진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합당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근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각 가설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H1]은 ‘종교 vs. 무종교’ 비교로서, 비교대상 국가 모두에서 공히 종교인들보다는 비종교인들이 낙태에 대해 더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한편, 앞서 지적하였다시피 필리핀의 경우에는 무종교의 비율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교대상국은 3개국(한국, 일본, 미국)으로 한정된다. [H1]의 검증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데, 먼저 이원분석 결과를 들여다보면 3개국 모두에서 예외 없이 종교인들보다는 무종교인들의 태도가 더 개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표 2>). 이러한 사실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미국의 경우에 가장 확연하다.

<표 2> 낙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의 종교별 평균 차이: 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

변인 ¹⁾	평균 ²⁾	F	무종교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u>한국(N=1,421)</u>							
무종교(n ₁ =576)	2.938(.816)	11.368 (p < .001)	-	-	-	-	-
가톨릭(n ₂ =131)	2.760(.882)		n.s.	-	-	-	-
개신교(n ₃ =377)	2.615(.874)		***	n.s.	-	-	-
불교(n ₄ =337)	2.864(.882)		n.s.	n.s.	**	-	-
<u>일본(N=769)</u>							
무종교(n ₁ =499)	2.647(.807)	8.726 (p < .01)	-	-	-	-	-
불교(n ₂ =270)	2.467(.836)		**	-	-	-	-
<u>미국(N=1,019)</u>							
무종교(n ₁ =181)	3.097(1.104)	25.655 (p < .001)	-	-	-	-	-
가톨릭(n ₂ =263)	2.498(1.069)		***	-	-	-	-
개신교(n ₃ =575)	2.423(1.142)		***	n.s.	-	-	-
<u>필리핀(N=1,062)</u>							
가톨릭(n ₂ =983)	1.343(.652)	10.093 (p < .001)	-	-	-	-	-
개신교(n ₃ =16)	1.156(.301)		-	n.s.	-	-	-
이슬람교(n ₅ =63)	1.714(.855)		-	***	*	-	-

주: 1) 변인측정의 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조.

2) 비조정 평균(unadjusted means); 괄호안 수치는 표준편차.

< 표 3 > 낙태에 대한 태도의 OLS 회귀분석¹⁾ 결과: 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²⁾

국가	한국(N=1,421)			일본(N=769)			미국(N=1,019)			필리핀(N=1,062)		
모형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종교³⁾												
가톨릭	-0.178*	-0.176*	-0.072	N.A.	N.A.	N.A.	-0.599***	-0.539***	-0.105	-0.371***	-0.348***	-0.355***
개신교	-0.322***	-0.323***	-0.200**	N.A.	N.A.	N.A.	-0.674***	-0.649***	-0.103	-0.558***	-0.523**	-0.516**
불교	-0.074	-0.014	.077	-0.182**	-0.225***	-0.222**	N.A.	N.A.	N.A.	N.A.	N.A.	N.A.
사회인구학적 변인												
남성	-	-0.071	-0.078	-	.064	.064	-	.025	-0.067	-	-0.083	-0.089*
연령	-	-0.006***	-0.005**	-	.006**	.006**	-	.003	.004	-	-0.001	-0.001
수학년수	-	.018*	.019**	-	.006	.006	-	.075***	.064***	-	-0.007	-0.007
대도시	-	.036	.039	-	.133	.133	-	.075	.004	-	-0.062	-0.059
취업	-	-0.069	-0.072	-	.087	.090	-	.096	.074	-	-0.019	-0.013
LN_가구소득	-	.050*	.049*	-	-0.010	-0.010	-	.069	.098*	-	.023	.022
주관적 성향												
종교적 성향	-	-	-0.045*	-	-	.003	-	-	-0.245***	-	-	-0.014
이념적 성향	-	-	.003	-	-	.043	-	-	.197***	-	-	-0.071*
상수	2.938***	2.633***	2.708***	2.647***	2.252***	2.109***	3.097***	1.297***	1.395***	1.714***	1.739***	2.042***
F	11.368 (p<.001)	11.588 (p<.001)	10.105 (p<.001)	8.725 (p<.01)	3.389 (p<.01)	2.706 (p<.01)	25.655 (p<.001)	14.582 (p<.001)	23.274 (p<.001)	10.093 (p<.001)	3.533 (p<.001)	3.492 (p<.001)
R ² /Adj-R ²	.024/.021	.069/.063	.073/.066	.011/.010	.030/.021	.031/.020	.048/.046	.104/.096	.188/.180	.019/.017	.026/.019	.032/.023

주: 1) 비표준화 계수(unstandardized coefficients).

2) 변인측정의 자세한 내용은 <표 1>을 참조.

3) 기준범주: 한국 = 무종교; 일본 = 무종교; 미국 = 무종교; 필리핀 = 이슬람교.

* p< .05, 양측검증. ** p< .01, 양측검증. *** p< .001, 양측검증.

다음으로 모형에 포함된 여러 변인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종교의 영향력을 살펴본 OLS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3개국 공히 종교 집단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부정(-)이어서 무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표 3>). 이는 각국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일시에 통제되면 전혀 변함이 없지만 주관적 성향 변인들이 부가적으로 통제되면 다소 열리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분석 및 다원분석 모두 종교인에 비해 비종교인들이 낙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뚜렷한 경향을 3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임으로써 [H1]을 경험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다.

‘종교 vs. 무종교’ 비교를 넘어선 종교집단들 상호간의 다각적 비교를 위한 가설은 모두 세 가지([H2]~[H4])였다. 그 중 첫 번째인 [H2]는 한국의 불교도와 개신교도를 서로 비교했을 때 불교도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일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2.615)에 비해 불교(2.864)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개방적 태도를 견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두 종교 간의 이러한 차이는 OLS 회귀분석 결과로도 전혀 변함이 없어서, 개신교도 대비 불교도의 개방성은 변수통제 방식과 무관하게 그대로 재차 확인된다(<표 3>). 이로써 한국에서 개신교보다 불교가 낙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H2]는 지지되었다.

종교집단 사이의 두 번째 비교인 [H3]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양대 집단 상호 간의 비교로서, 양국 공히 복음주의 개신교도보다 가톨릭교도가 더 개방적일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이원분석 결과를 우선 살펴보면, 비록 두 나라 모두 복음주의 개신교보다 가톨릭이 더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한국: 개신교 = 2.615; 가톨릭 = 2.760 / 미국: 개신교 = 2.423; 가톨릭 = 2.498)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가 않다(<표 2>). 한편 OLS 회귀분석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 모형에 포함된 여타 변인들이 통제된 이후에는 복음주의 개신교 대비 가톨릭의 영향력이 확연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가 있다(<표 3>). 이러한 경향은 양국 모두에서 공통적이지만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된다. 무릇 이원적 수준의 평균차 검증보다는 다원적 수준의 회귀분석이 지니는 통계적 검증력이 우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H3]는 지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종교집단 상호 간 세 번째 비교인 [H4]는 필리핀에서 가톨릭, 복음주의 개신교, 이슬람교의 순으로 낙태에 개방적인 태도가 발견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종교집단 내 차이 예측은, 이미 사실로 확인된 상기 가설들([H2], [H3])과 달리, 빗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원적 평균차 검증으로 보더라도 그러하거니와 다원적 회귀분석으로 보더라도 예상과 달리 이슬람교가 낙태에 대해서 가장 개방적이고 그 뒤를 이어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가 위치함을 알 수 있다(<표 2>, <표 3>). 이로써 [H4]는 기각되었다.

종교집단 상호 간 비교를 넘어서서 전체 사회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특성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변이를 예측한 것은 각각 [H5] 및 [H6]이었다. 먼저 [H5]에서는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필리핀이나 한국에서보다는 그 정도가 더한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방성이 클 것이며, 이는 특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 더욱더 그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이 가설은 단순히 국가 간 차이만을 예측하고 있기에 이원적 평균차 검증으로도 족하다. <표 1>를 보면 낙태에 대한 태도는 한국(2.818)이 가장 개방적이며, 그 다음으로 일본(2.583), 미국(2.562), 필리핀(1.362)의 순이다($p < .001$).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비록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에는 예상과 일치하는 방향이지만 한국과 관련하여서는 예상을 빗나가는 결과에 해당한다. [H5]에서는 무종교인의 경우에 국가별 차이의 방향이 더 확연할 것이라는 부가적인 예측 또한 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에서 보듯이 미국(3.097) > 한국(2.938) > 일본(2.647)의 순으로 개방적이어서($p < .001$),⁸⁾ 비록 각국의 종교인까지도 포함했던 상기 상황보다는 덜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엇나감으로 인해 예상을 뒤엎고 있다. 결국 국가별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H5]는 기각된 셈이다.

전체 사회 수준에서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변이를 다루는 마지막 가설([H6])은 4개국 모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인구집단이 그렇지 못한 인구집단에 비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른 가설들과 마찬가지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이원분석과 다원분석이 시도되었는데, 우선 이원분석을 위해 상관관계 계수를 산출하고 검증한 결과 국가별로 일관성 높은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낙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는 한국의 경우에는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인구집단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우엔 대도시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우엔 남성, 고학력, 취업, 고소득 집단을 중심으로, 필리핀의 경우엔 여성 및 대도시 이외 지역(농어촌, 중소도시)에서 발견되었다.⁹⁾ 연이어서 다원적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표 3>) 또한 국가별로 일정

8) 한편 종교인만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한국(2.737) > 일본(2.467) > 미국(2.446) > 필리핀(1.362) 순으로 개방성이 크다.

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았다. 즉, 개방성 높은 태도는 한국에서는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 인구집단, 일본에선 고연령, 미국에선 고학력, 고소득, 필리핀에선 여성을 중심으로 발견되었다(<표 3>). 이러한 결과를 [H6]의 예측에 포함된 6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수 각각과 결부시켜보면, 성별, 연령, 거주지역, 취업상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혹은 해당 영향의 방향이 국가별로 상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나머지 두 변인인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은 일정 부분 일관성이 있어서, 한국과 미국에서 고학력자 및 고소득자는 낙태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줄곧 견지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H6]을 지지하게 하는 일부의 발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국가별로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이 가설은 기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종교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에 있어서 대단위 국제비교분석 자료를 활용한 원숙한 계량분석의 토대가 비교적 척박한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낙태와 종교 상호 간의 유기적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낙태에 대한 태도는 종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그러한 차이는 또한 사회에 따라 어떠한 변이를 보이는가?”하는 연구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기존연구들을 통해 이론적·경험적 정합성이 확보된 일련의 연구가설들([H1]~[H6])을 도출해 내고 이들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ISSP의 <종교> 모듈조사 자료에 포함된 4개국(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가설검증의 결과 세 가지 가설([H1]~[H3])은 지지되었고 세 가지([H4]~[H6])는 기각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

9)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 사이의 국가별 이원상관관계표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 비단 긍정 혹은 부정의 비율을 떠나, 이와 같은 결과는 그 자체로서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경험적 함의를 보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각 가설에 대한 검증결과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먼저 [H1]은 종교와 낙태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가장 빈번하면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져 왔던 연구문제로서, 과연 비종교인들이 종교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하는 예측이었다. 이원분석 및 다원분석 공히 비교대상 3개국(한국, 일본, 미국) 모두에서 비종교인들의 태도가 일관적으로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사회의 대표주자격인 미국에서 최근의 국제공동연구 조사자료에 기반한 분석 및 검증을 통해 일시에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는 차별화되는 의미를 지닌다.

부연컨대, 낙태에 대한 태도가 여러 종교집단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이 연구의 가설적 예측을 통해서도 그렇고 검증결과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실제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집단을 막론하고 종교생활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생명존중 사상을 일정 부분 공통적으로 포함하며, 그로 인해 태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끊는 낙태 행위에 대해 종교가 허용적·관용적 태도를 보이리라고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낙태와 종교 상호 간 관계가 기존연구에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적·공간적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여전히 미진한 상태로 남겨져 왔던 문제는 그와 같은 일관성이 과연 21세기 한국, 일본,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미 강조되었다시피, 낙태와 종교를 연결 짓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Evans & Hudson 2007), 호주(de Visset et al. 2007), 브라질(Ogland & Verona 2011) 등 한 국가에 국한하여 시도되었을 뿐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을 동시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 동일한 조사구도 내에서 일괄적으로 밝혀져 학계에 보고된 것은 일부(예, 은기수 2002)를 제외하곤 아직 없다. 단순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러하거니와 하물며 미국과

비교해 보면 종교의 구성이나 분포, 사회문화적·전통적 특성, 사회경제적·구조적 특성 등에 있어서 이들 3개국은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vs. 비종교’ 간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이들 3개국에서 일시에 그리고 일관적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연구들의 이론적·경험적 설득력을 제고시켜 주는 결과인 동시에 이 연구의 차별적 의미 또한 새로이 각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수십 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종교와 낙태 간 관련성 연구에서 ‘종교 vs. 비종교’ 비교구도 못지않게 집중적인 관심을 모았던 주제는 종교집단 상호 간 비교로서,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낙태에 대해 과연 얼마나 더 개방적 혹은 보수적 태도를 보일 것이며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모두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의 ‘불교 vs. 개신교’ 비교([H2]), 한국과 미국의 ‘가톨릭 vs. 개신교’ 비교([H3]), 필리핀의 ‘가톨릭 vs. 개신교 vs. 이슬람교’ 비교([H4])를 각각 시도하였다. 각 가설에 대한 이원적 및 다원적 검증 결과 [H2]와 [H3]는 지지되었으나 [H4]는 기각되었다.

우선 [H2]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개신교도 대비 불교도의 낙태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라는 이 연구의 결과는 지난 오랜 동안의 전 세계적 종교연구에서 여러 세계종교들 가운데 불교를 포함시켜 비교를 시도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보유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전통적으로 단일 종교가 지배적인 서구사회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기독교 혹은 그 분파로서의 가톨릭과 개신교 비교에만 거의 절대적인 관심을 경주하였을 뿐 서구 이외 지역에 지배적인 종교, 특히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과의 상호비교 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의 이면에는 수준 높은 등가적 비교를 가능케 하는 대단위 국제사회조사 자료가 여의치 않았던 것 또한 한 몫 하였으리라는 점은 앞서 이미 강조된 바와 같다. 여하튼 그로 인한 자연스런 귀결은 동양사회를 대표하는 세계종교인 불교가 전격적으로 누락됨으로써 ‘불교 vs. 기독교’ 비교분석이 상당한 공백상태로 남겨져 왔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인 방법은 다름 아닌 대단위 국제사회조사 자료에 포함된 다종교사회에 대한 집중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애당초 한국을 포함시켰던 연유가 바로 그러하거니와 다행히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동양에서는 그나마 개신교의 상대적 비율 및 영향력이 가장 압도적인 곳으로서 개신교가 전래종교인 불교와 서로 경쟁하듯 공존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불교 vs. 기독교’ 비교의 최적지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신교 대비 불교의 개방성은 기존의 연구공백을 일정 부분 채워줄 수 있는 최신에 연구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물론이요 개신교에서처럼 다분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성 행위 관련 교리나 규칙을 별달리 드러내지 않는 다원신앙적 특성의 불교는 낙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견지한다(Adamczyk & Pitt 2009)는 기존의 주장에도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H2]에 이어 종교집단 상호 간 두 번째 비교인 [H3]는 한국과 미국의 ‘가톨릭 vs. 개신교’ 비교로서 양국 공히 가톨릭의 개방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검증결과는 이를 실제의 사실로 뒷받침해 주었다. 기독교의 양대 산맥인 가톨릭과 개신교 간 낙태에 대한 태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성과는 다른 어떤 종교간 비교에 비해서도 상당한 정도로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서구사회가 다름 아닌 기독교 문명의 사회라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가장 크다. 이 점에서 볼 때 미국은 기존의 연구성과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비교사회학적인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서구사회 중에서도 개신교와 가톨릭의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이상적인 연구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사회에서 두 종교를 직접 비교분석한 연구결과는 생각보다는 혼치가 많은데, 그 주된 이유는 양대 기독교 분파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세력적 균형을 이루는 사례가 동양에서는 그다지 혼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연구에 포함된 일본과 필리핀을 보더라도 그러하거니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보더라도 비교적 쉽사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가장 예외적인 동양의 사례는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불교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종교집단을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의 세력적 균형 또한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이 연구를 통해 미국과 더불어 한국에서도 발견된 개신교 대비 가톨릭의 개방성은 전술한 ‘성서적 문자주의’ 및 ‘도덕적 공동체’ 주장의 신빙성을 제고시켜 주는 결과임과 동시에 기존의 연구 결과를 서구사회를 넘어 동양사회에로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종교집단 상호 간 비교의 세 번째 가설인 [H4]는 필리핀에서 가톨릭, 복음주의 개신교, 이슬람 순으로 개방성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었는데, 검증결과 이는 기각되었다. 한편, 가톨릭과 복음주의 개신교만으로 좁혀서 바라본 차이는 [H3]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이미 예측도 되고 확인도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필리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됨으로써 [H3]의 설득력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여하튼, 기독교와 이슬람을 동시에 비교하는 일은 기존연구에서는 좀처럼 흔하지 않았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한 사회에서 두 종교가 비교적 대등하게 세력적 균형을 이루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터키 등의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곤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아시아에서 그러한 상황에 가장 근접하는 국가는 필리핀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의 발로에서 이 연구에 필리핀을 포함한 것이었는데, 검증결과는 예상과 달리 이슬람이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 이슬람의 극심한 보수성이 예상되었던 주된 연유는 최근의 한 연구(Adamczyk & Hayes 2012)가 주장하듯이 성 관련 인식 및 행동에 있어서 보수성이 가장 강한 유일 신앙적 세계종교가 다름 아닌 이슬람교라고 논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예상 밖 결과에 대해 이 연구가 명쾌한 해석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의 내적 완결성의 견지에서도 그렇고 추후 후속연구를 기약할 필요성의 견지에서도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두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계량적 차원의 문제로서, 필리핀의 경우 종교분포에 있어서 가톨릭(92.6%)의 비율이 단연코 압도적이었을 뿐 이슬람(5.9%) 및 복음주의 개신교(1.5%)의 비율은 이 연구에 포함된 나머지 3개국(한국, 일본, 미국)에서의 종교분포에서처럼

비등하지도 대등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이슬람과 복음주의 개신교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가톨릭과의 비교를 굳이 시도하였던 주된 이유는 비록 그 비율 자체는 높지 않더라도 아시아에서 그나마 ‘이슬람 vs. 기독교’ 비교를 도모할 나라가 필리핀 정도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판단이 충분치 못한 수효의 사례수로 인해 집단 간 비교에 일정 부분 통계적 제약을 초래할 개연성에 대한 반론 근거로까지 작용할 수는 없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두 번째 가능성은 보다 실질적 차원의 문제로서, 필리핀의 신비주의적 요소가 강한 이슬람(수피즘)이 과연 ‘정통 이슬람’과 어느 정도 근접 혹은 이탈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 및 규칙 그 자체야 이슬람 사회의 어느 곳에서나 대동소이하겠으나 정작 의문은 아랍권 등지의 다분히 정통적인 이슬람과 달리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동남아시아에 이식된 이슬람의 경우 해당 교리 및 규칙이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제약하고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적잖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모든 종교는 애초의 발원지를 떠나 타지에 추후 이식될 경우 해당 사회의 토착신앙, 전통, 역사, 문화 등과 혼합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교리 및 종교적 규칙 등이 일정 부분 변형되는 불가피한 과정을 겪게 마련이다.

‘종교 vs. 비종교’ 그리고 ‘종교집단 상호 간 비교’를 떠나서 전체 사회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특성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예측했던 가설은 [H5] 및 [H6]이었는데, 검증 결과 이 두 가설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국가 간 비교의 관점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이나 필리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성을 보일 것이라는 [H5]은 한국, 일본, 미국, 필리핀의 순(무종교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엔 미국, 한국, 일본, 필리핀 순)으로 드러남으로써 예측을 벗어났다. 예측이 빗나간 주된 사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한국의 개방성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큰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생존’ 단계를 탈피해서 원숙한 ‘자아표현’의 단계에 이미 도달해서 종교적으로도 다원적이며 개인의 선택이 중시되는 사

회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필리핀의 이슬람에 대한 예측([H4])이 엇나간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간단명료한 설명은 결코 쉽지가 않다. 다만 한 가지 가능성을 언급해 보자면, 이 예측에 대한 주된 논거(Inglehart 2006; Adamczyk & Pitt 2009)와 상이하게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른 성 관련 인식의 개방성은 어디까지나 전반적 추세에 방점을 둔 것일 뿐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한 사회의 종교적 지형(분포)이나 심도(종교성)까지 일시에 억누르는 방향으로 단선적으로 작동하리라고까지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만일 이러한 의구심이 합당한 것이라면 한국사회에는 낙태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개방성을 발현시키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 ‘무엇’의 실체와 관련하여서는 불교와 기독교 등 21세기 한국종교의 토착적·구복적 특성 등을 위시해서 실로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직 추론적 수준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을 뿐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파헤쳐지고 논의되어야 할 중장기적 사안에 해당한다.

국가 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예측한 [H6]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활동적인 인구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일관적으로 높은 개방성을 나타내지는 않음으로써 예측을 벗어났다. 이 가설에 포함된 6가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가운데 그나마 두 변인(교육수준, 가구소득)은 대체로 예측과 일치하는 경향성을 나타냈지만 나머지 변인들(성별, 연령, 거주지역, 취업상태)은 통계적 유의도가 미미하거나 혹은 국가별로 상충되는 영향을 보였다. 이 가설의 주된 논거는 ‘생존 vs. 자아표현’ 주장 이외에도 ‘문화전쟁’ 이론(Hunter 1991)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연구의 결과는 그와 같은 주장이나 이론을 일시에 부정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할까?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결코 쉽지 않겠으나 사후해석의 위험을 재차 무릅쓰고 추론 수준의 가능성을 몇 가지 제시해 볼 수는 있을 듯하다.

첫째, 문화전쟁 이론 등에서 주장하는 미국인들의 성 관련 태도의 차이가 과연 ‘종교(복음주의자) vs. 비종교(세속주의자)’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 또는 종교성과 밀접히 연동된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져 있지 않겠는가 판단된다. 둘째,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종교집단별, 계층적 차이가 과연 거시적 세계관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시적 시각으로서의 성 관련 태도(더 구체적으로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까지도 그대로 투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 또한 일정 부분 불분명한 상태이다. 셋째, 그와 같은 이론이나 주장에서 준거로 삼고 있는 미국사회는 한국이나 일본, 필리핀 등의 동양사회와 종교적 지형이나 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본질적으로 이론적·담론적 차원의 문제임과 동시에 경험적인 문제이기도 해서 지속적인 비교사회학적 후속연구들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규명되어야 할 사안들로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 및 후속연구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촉발시켰던 원래의 문제의식인 국내 종교연구의 실증분석적 한계 상황은 여전한 것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연구가 그러한 연구공백을 미력이나마 해소하고 그동안 서구사회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온 연구지평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아 향후에는 동양사회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비교사회학적 후속연구를 풍성하게 추동하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상욱 외. 2008. 《한국종합사회조사 200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사라타나 유미. 2004. “낙태에 대한 한국인의 종교 의식 연구: 증산도의 ‘뱃속살인’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선주. 1993. “종교, 여성의 사회참여 및 남아선호사상과 낙태경험 유무.” 《가족과 문화》 5: 43-60.
- 은기수. 2002.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 세계가치관조사 국제비교연구.” 《정신문화연구》 25(2): 55-82.
- 이경직. 2007. “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기독교철학연구》 8: 63-93.

- 한내창. 2010. “종교성과 성 태도와의 관계.” 《한국사회학》 44(5): 114-138.
- 한내창. 2012. “종교성과 타종교와의 결혼 허용도.” 《한국사회학》 46(1): 130-155.
- Adamczyk, A. and B.E. Hayes. 2012. “Religion and Sexual Behaviors: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Islamic Cultures and Religious Affiliation for Explaining Sex Outside of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7(5): 723-746.
- Adamczyk, A. and C. Pitt. 2009. “Shaping Attitudes about Homosexuality: The Role of Religion and Cultural Context.” *Social Science Research* 38: 338-351.
- Bartkowski, J.P., A.I. Ramos-Wada, C.G. Ellison, and G.A. Acevedo. 2012. “Faith, Race-Ethnicity, and Public Policy Preferences: Religious Schemas and Abortion Attitudes Among U.S. Latino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1(2): 343-358.
- Beckwith, H.D. and J.A. Morrow. 2005.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he Impact of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College Student Journal* 39: 357-366.
- Chung, W. 2007. “The Relation of Son Preference and Religion to Induced Abortion: The Case of South Korea.” *Journal of Biosocial Science* 39(5): 707-620.
- de Visset, R.O., A.M.A. Smith, J. Richters, and C.E. Rissel. 2007. “Associations between Religiosity and Sexuality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Australian Adul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6: 33-46.
- Durkheim, E. 1965(1915).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Y.: Free Press.
- Evans, J. and K. Hudson. 2007. “Religion and Reproductive Genetics: Beyond Views of Embryonic Life?”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6(4): 565-582.
- Harvey, P. 2000. *Introduction to Buddhist Ethics*. N.Y.: Cambridge Univ. Press.
- Hodge, D.R. 2005. “Epistemological Frameworks, Homosexuality, and Religion:

- How People of Faith Understand the Intersection between Homosexuality and Religion.” *Social Work* 50(3): 207-228.
- Hoffman, J.P. and J.P. Bartkowski. 2008. “Gender, Religious Tradition, and Biblical Literalism.” *Social Forces* 86(3): 1245-1272.
- Hunter, J.D. 1991. *Culture War: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Y.: Basic Books.
- Inglehart, R.F. 2006. “Mapping Global Values.” *Comparative Sociology* 5: 114-136.
- Jung, J.H. and D. Olson. 2014. “Religion, Stress, and Suicide Acceptability in South Korea.” *Social Forces* 92(3): 1039-1059.
- Nunnally, J.C. 1978. *Psychometric Theory*. N.Y.: McGraw-Hill.
- Ogland, C.P. and A.P. Verona. 2011. “Religion and Attitudes towards Abortion and Abortion Policy in Brazi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0(4): 812-821.
- Pew Research Religion and Public Life Project. 2013 (Aug. 15). “Abortion Viewed in Moral Terms.”

<접수 2015/10/15, 수정 2015/11/11, 게재확정 2015/11/13>